

전남도 복지사업 연계 고독사 막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역량 강화

3개 분야 24개 과제 중점 추진

전남도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복지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복지사업과 연계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세워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고독사, 취약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를 위해 '2023년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역량 강화 및 정책연구 등 3개 분야 24개 과제를 발굴하고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시행계획은 지난해와 달리 노인, 청년 등 전남도 개별 부서에서 추진 중인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사업과 연계해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분야에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강화 ▲24시간 위기가구지

원 콜센터 운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강화 ▲민간 인적안전망 활성화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위기가구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재 파악과 공공·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원 연계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서비스 구축이 기대된다.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분야에선 전남도 개별 부서에서 추진 중인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사업과 연계해 4개 부서가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사회복지과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사업 등 6개 과제를 추진해 연중 상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민간협력 복지안전망 서비스를 구축한다. 노인복지과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어르신 반려로봇 보급 확대 등 4개 과제를 추진해 홀로사는 어르신 건강돌봄과 응급상황 대응 강화를 통해 독거사 예방관리에 힘쓴다.

건강증진과는 찾아가는 전남 마을 안심버스, 자살 예방활동 등 4개 과제를 추진해 도민 통합건강증진과 정신건강 돌봄을 강화한다. 여성가족정책관은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등 2개 사업을 통해 은둔형 청년 고립 해소와 자립준비 청년의 성장을 돕는다.

역량강화 및 정책연구 분야에선 ▲통합사례관리 직무역량 ▲전남 고독사 실태 및 예방방안 연구 ▲전남 고독사 예방협의체 구성 등 3개 과제를 추진해 업무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관련 연구자료는 고독사 제로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2021년 4월 고독사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전남도는 같은 해 5월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빠르게 제정했다. 지난해 독자적으로 각 읍면동 고독사 위험군 실태를 조사하고 위험군으로 발굴한 1969명에 대해 1대1 전남 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2차례 실태조사를 추진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2024년 보건복지부 '고독사 시범 공모사업'에 22개 시군이 참여해 선정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1%, 홀로사는 어르신이 노인인구의 25.3%를 차지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 여건은 좋지 않다"며 "고독사 대응 최선책은 자주 찾아보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이단 등을 활용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녹색에너지연구원, 그린수소 역량강화 세미나

부산서 UNEP CTCN과 공동 개최

(제)녹색에너지연구원(원장 주동식)이 지난 23일부터 1박2일간 부산 센텀프리미어호텔에서 UNEP CTCN과 공동으로 '그린수소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UN이 지정한 국가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력을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관계자(National Designated Entity)를 초청해 그린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에 대한 기술 공유와 국가별 그린수소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UNEP CTCN 김제원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현서 박사, UNIST 오현철 교수, (주)효성

임효성 부대표, 한국에너지공단대 황지현 교수,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장성호 박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류준형 박사, 전남도 해상풍력과 배양석 과장 등이 23일 주제 발표를 맡았다. 24일에는 NREL 마크 루스, 일본 NDE 노리히로 기무라, 태국 NDE 노라카이 톱스비사비키트프라라 등이 주제 발표를 하고 12개국 NDE가 모두 참여해 토론회도 가졌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이번 그린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에 대한 기술 공유와 국가별 그린수소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UNEP CTCN 김제원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현서 박사, UNIST 오현철 교수, (주)효성

전남도·전남관광재단 관광두레 운영인력 협약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체 육성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지난 24일 오후 '전남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을 이룰 운영인력과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센터장과 PD로 구성된 지역협력센터를 구축하고, 권역별로 권역별 주민사업체 육성·지원, 지역 관광 자원 조사 및 상품 개발 등을 취지로 마련됐다.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이란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인 '두레'와 '관광'을 결합한 것으로,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체의 육성이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로 협력하며 숙박, 식음, 주민여행사, 체험, 레저, 기념품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사업체를 만들고 자립적으로 경영하도록 지원한다.

관광두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센터장과 관광두레PD의 역할이다. 센터장과 PD는 지역현장에

서 주민공동체의 발굴과 조직화에서부터 창업 경영개선 지원까지 사업을 총괄 진행한다. 지역총괄, 지자체, 주민사업체 간 중간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자이자 활동가이다.

2023년에는 전남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으로 모두 27개 주민사업체를 지원한다. 지역별 주민사업체로는 여수 1곳, 나주 4곳, 광양 3곳, 담양 3곳, 구례 5곳, 고흥 5곳, 보성 2곳, 강진 4곳 등이다. 2023년에는 ▲나주 순수한이들의정원, ▲광양 아늑한 ▲담양 메타로드영농조합법인 ▲구례 수달마을회 ▲구례 지리산씨 협동조합 ▲구례 구례생협동조합 ▲고흥 농협회사법인(주)하루애꽃 등 8곳이 새롭게 지원을 받는다. 전남관광재단 관계자는 "전남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사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영농철 농촌 일손 부족 해소 구슬땀

6월 19일까지 일손돕기 중점기간

전남도가 마늘·양파 수확, 모내기, 과실 수확 등 본격 영농철을 맞아 6월 19일까지를 '농촌 일손돕기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유관기관 등과 함께 봄철 일손 부족 해소를 지원한다. 농촌 일손돕기 중점기간 도청 실국원 등 부서별로 전 직원이 1회 이상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토록

하고, 군부대, 농협 등 유관기관에는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매년 농촌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취약 농가의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전남도 농축산식품국과 해남군청 농정과 직원 70여 명은 25일 무더위 속에서 해남 화산면 송산리를 방문해 0.5ha의 마늘 수확을 도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완도수목원 아열대 온실

이국적 정취 느껴보세요

캥거루포우 등 601종 전시

전남도 완도수목원이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을 맞아 601종의 다양한 아열대식물을 전시해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열대 온실 관람을 추천했다.

완도수목원에 3762㎡ 규모의 유리온실로 조성한 아열대 온실은 워싱턴야자, 인도보리수, 유향나무, 금초 등 601종의 다양한 아열대식물을 전시하고 있어 흡사 열대우림에 있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아열대 온실에선 공중정화 식물인 틸란드시아가 배출한 청정한 공기를 마시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하얀색, 남보라색 자태의 브로멜리아 재스민의 진한 꽃향기를 담백 느낄 수 있다.

또 이름만큼이나 특색 있는 캥거루포우(Anigozanthos flavidus)를 만날 수 있다. 호주가 원산으로 캥거루 발톱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이밖에 공룡이 먹던 울레미소나무, 잎 위에 꽃이 피는 루스쿠스아쿨레아투스(Ruscus aculeatus)와 같이 특이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식물을 접할 수 있다.

온실 안팎으로 꾸며 놓은 가로정원과 사진 촬영 구역에선 인생 한 컷을 남길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기업·구직자 잇는 '여성 일자리 박람회' 성황

순천 팔마체육관서 올 첫 개최

150개 기업·구직자 1200명 참여

전남도가 지난 25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지역 우수기업과 여성 구직자를 연결하는 만남의 장인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구인 기업 150개와 순천, 곡성, 구례, 고흥, 보성 등 5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 이번 박람회엔 12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사진>

박람회는 직업탐색관, 직업코칭관, 직업도전관을 통해 취업 연계를 지원했다. 박람회 주제관에선 여성 노동시장의 현황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홍보 등 다양한 취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산업 동향 변화 대응과 실생활에 적용하는 챗지피티(Chat GPT) 활용 현장 특강, 신미래 직업 메이킹관을 통해 미래직업의 변

화 과정을 확인하고 생활 형태 변화에 따른 경력보유 여성의 특화 창업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변화를 꿈꾸는 여성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전남도는 '경력이음바우처'로 취업·면접 준비 비용을 지원하고 '여성 경력재충전 인턴십 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 세일센터를 통해 취업자와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은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여성은 기업이 원하는 자격을 갖추 여성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힘찬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시작해 기업과 여성 구직자를 잇는 취업의 장으로 자리잡은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이날 순전을 시작으로 6월 8일 목포, 10월 18일 여수, 10월 26일 나주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전집

시 |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 선운사 동백꽃
동시 | 동근 해를 궁굴리며
선집 | 전원범 문학선 99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역문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